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만나도 양보 없다”

시·도 행정통합 논란 관련 경제권 통합 고수 입장
“통합 문제, 다른 현안과 버무려 논의할 사항 아냐”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이용섭 광주시장 이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권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이 시장과 만나도 그 이상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권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결국은 경제적 통합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적 통합을 위해 시·도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도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제기됐다. 단순한 행정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 확충을 포함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고 검증과 공론화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민간 주도로 진행해야 하는 데 시·도지사가 앞서 말하면 민간 주도가 될 수 없다. 광주시장도 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시·도지사가 만나서 논의해도)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급진적인 논의와 단순한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도 지사가 회동해 시·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 달 내에 광주시장과 만나 시·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던 김 지사는 이날 “통합 문제는 다른 현안과 버무려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시·도 통합을 전제로 통합청사 이름과 소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구·경북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남악신도시를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많다. 이용섭 시장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헬기사격’ 광주 전일빌딩245, 한국의 ‘숨은 관광지’ 선정

관광공사, 2209곳 추천 7곳 엄선
5·18 넘어 현재·미래 지향 공간

광주시는 ‘광주 1번지’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의 흔적이 보존된 전일빌딩245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추천한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계절별로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에만 개방하는 한정 개방 관광지를 소개하는 ‘숨은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가을시즌 숨은 관광지는 지난 7월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2209곳을 접수받았으며, 여행작가와 기자 등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전국 7개 관광지를 엄선했다.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세월과 사연이 담긴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 흔적이 발견된 이후 과거를 보듬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선정위는 5·18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



너머로 광주의 삶과 역사가 깃든 가볼만한 곳으로 평가하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숨은 관광지로 선정했다. 전일빌딩245는 하절기 오전 9시~오후 10시, 동절기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개방된다. 이 중 5·18 당시 헬기사격 총탄 흔적 원형 보존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5·18기념공간인

‘19800518’, 광주와 인근 남도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남도관광센터’, 노트북과 태블릿 등으로 DV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전체와 19800518, 남도관광센터 등에서는 분야별로 선택적 해설이 가능하다.

해설은 1일 5회 정기해설과 1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 투어 인원을 20여 명으로 한정, 운영하고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아픈 역사인 5·18 기념공간을 담은 전일빌딩245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민들이 추천하고 관광공사가 선정한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 가을시즌 숨은 관광지는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서울 홍제유원 ▲강원 동해 배틀바위산성길 ▲충북 제천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경북 울진 국립해양 과학관 ▲경남 밀양 표충사 우리아이마음술놀이터와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제주 서귀포치유의 숲이 선정됐다. 전일빌딩245는 52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문화공간인 시민플라자(지하1~지상4층),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위한 광주 콘텐츠허브(5~7층), 5·18 기념공간인 19800518(9~10층), 전망·휴게공간인 전일마루와 굴뚝정원(옥상, 8층) 등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은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지난 5월11일 개관했다. 서선욱기자

영광군 ‘보리·모시잎산업 특구’ 지정...소득증대 견인

영광군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보리·모시잎산업’의 고도화 발판을 마련해 주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제4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광 보리산업특구가 ‘영광 보리·모시잎특구’로 확대 변경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보리산업 특구는 지난 2010년에 지정됐다. ‘보리·모시잎산업 특구’는 2개 분야 5개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보리산업 분야’는 보리식품화 가공산업, 보리생산·자원화, 보리 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이 중점 육성 대상이다. 추가된 ‘모시잎산업 분야’는 모시잎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 모시잎소편 운영·마케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 보리에 이어 모시잎산업까지 특구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브랜드 강화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